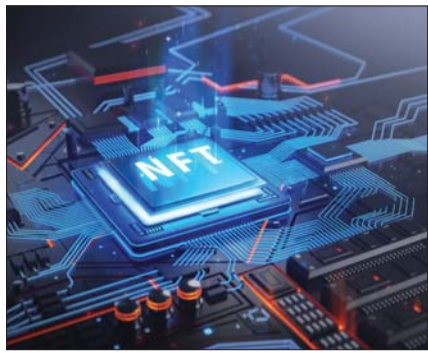


불 붙는 'NFT' 선점 경쟁에 "거품 주의... 제도 수반 돼야"

전 세계 NFT 거래액 250억달러
가상거래소, NFT 초점... 서비스 개선
국내 빅테크 기업, 사업 확장 속도



블록체인 기반의 대체불가능토큰(NFT)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유투이미지

블록체인 기반의 대체불가능토큰(NFT)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법 마련을 통한 제도정비와 거품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NFT는 디지털파일로 만들어진 그림·동영상 등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위조가 불가능한 소유권을 부여한 기술이다. 예술품, 메타버스, 게임 아이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소유욕과 가격 상승기대로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19일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디앱레이더(DappRadar)에 따르면 2021

년 전 세계 NFT 거래액은 250억달러(약 29조9100억원)로 집계됐다. 2020년 9490만달러(약 1135억원)와 비교하면 264배 급증했다.

NFT는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의 거래액 차이가 심하다.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각각 12억달러(약 1조4000억원), 13억달러(약 1조5000억원)를 기록했다. 하지만 하반기 메타버스와 같이 새

로운 투자처로 주목되면서 3분기 거래액이 107억달러(약 12조7000억원)로 치솟았다.

세계 최대 NFT 거래 플랫폼인 오픈씨(OpenSea)도 7월까지 월 거래액이 3억달러 이하였지만 월 거래액이 8월부터 30억8000만달러(약 3조5000억원)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국내기업들 역시 NFT시장 선점을 위해 플랫폼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NFT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네이버의 관계사 라인인 NFT 전문 계열사 '라인 넥스트'를 한국과 미국에 각각 설립했고 카카오의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 그라운드X는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사업을 카카오의 또 다른 자회사 '크러스트'에 이관하고 NFT 사업

에 집중하고 있다.

가상거래소들도 올해 NFT에 초점을 맞춰 서비스 개선에 나서고 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NFT를 차세대 먹거리로 선정해 '업비트 NFT'를 출시했고 글로벌 진출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고도화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연내 NFT 거래소도 새로 오픈할 계획으로 다수의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엔터테인먼트, 게임, 정보기술(IT), 금융사 등도 NFT시장에 잠깐하고 있다.

다만 NFT가 본격적으로 활용되면서 저작권 문제와 거래화폐, 시세조작 등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NFT는 국내와 더불어 해외까지 법적·제도적 발전 단계에 있어 NFT를 가상자산의 범주화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확답도 없는 초기단계다. 지난해 관

련법 발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모두 계류상태여서 법제화를 통한 시장 안정화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기간 활성화되면서 거품 주의의 보도 내려졌다. NFT 작품 판매로 큰 수익을 기록한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도 NFT는 거품 상태라고 비판한 바 있다.

가상거래소 관계자는 "NFT가 활성화 되면서 관련법을 만들어 제도적 정비 필요하다"며 "대선후보 역시 암호화폐시장에 관심을 가지면서 관련법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NFT는 현재 투자방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NFT 기술의 응용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투자 시장은 버블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영암군 공고 제2022-52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동호리 일원 [삼호 백야~동역마을간 선형개선공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변경)을 위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공고하고자 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0일
영암군수 인

□ 농어촌도로(리도) 207호선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 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폐지/변경) 사유
				기점	종점			도로 너비 (M)	포장 너비 (M)	
삼호읍	리도	동역선	207호선	삼호읍 서호리 142-4	삼호읍 동호리 1457	3.7	소서호 마을	8.0 ~15.0	8.0	도로개설에 따른 노선 지정(변경)

- 사업명: 삼호 백야~동역마을간 선형개선공사
- 사업량: L=1.26KM, B=8.0M
- 사업기간: 2022. 03. ~ 2024. 12.
- 지형도면: 계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열람 및 의견서 제출기간: 2022년 1월 20일 ~ 2월 4일 (16일간)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열람장소: 영암군 건설교통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건설교통과 토목팀(061-470-2489)로 문의바랍니다.

절차 대폭 간소화한 '간편심사 보험'

편한 만큼 비싼 보험료 유의

보험사, 새로운 수요 창출 기대
유병자라도 항목 미해당시 가입

연초부터 간편심사보험이 속속 쏟아지고 있다. 고령·유병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다. 다만 간편심사 보험의 경우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간편심사 보험'... 새로운 시장 자리 매김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간편암 든든플러스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유병자 가입폭을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고객이 보험 상품 가입 전 고지하는 항목을 기존 9가지에서 3가지로 줄였다. 이에 따라 유병자라도 3가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3가지 기본 고지항목은 ▲최근 3개월 내 진찰이나 검사를 통한 입원·수술·재검사에 대한 필요 소견 ▲2년내 입원, 수술 이력 ▲5년내 암, 간경화, 투석 중인 만성신장질환, 파킨슨병, 루게릭병 등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이력 등이다.

동양생명도 간편심사보험인 '무수호천사간편한(335)내가만드는보장보험'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보장내용과 금액이 확정되

어 있는 기존의 상품과는 달리 가입자가 세분화된 특약 급부를 활용해 원하는 보험료 수준에 맞춰 필요한 보장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업계 최초로 고지사항 ▲3개월내 입원, 수술,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조건 ▲3년내 동일질병으로 6일 이상 입원·질병 이외의 동일한 사고로 14일 이상 입원 ▲5년내 7대 질환으로 진단·입원·수술을 완화해 비갱신형으로 최대 종신까지 보장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간편심사 보험 출시가 활발하게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입 요건을 개선한 만큼 유병자 고객의 수요도 높은 편"이라며 "보험사 입장에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시장으로 보고 있다. 그런 고객과 보험사들의 수요가 잘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 보험료, 일반 보험보다 20% ↑

다만 간편심사 보험의 경우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간편심사 보험은 일반 보험과 비교해 보험료가 20% 정도 비싸다.

하지만 일부 가입자의 경우 '간편'이라는 말을 가입절차 간소화 등으로 받아들여 간편심사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현대캐피탈, 7억 달러 글로벌 채권 발행

기채조건 다른 '듀얼 트랜치' 채권

현대캐피탈이 7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현대캐피탈이 발행에 성공한 글로벌 채권은 기채조건이 다른 '듀얼 트랜치' 채권으로, 각각 만기는 3.25년과 5년(그린본드)이다.

만기별 채권의 규모는 3.25년이 4억 달러, 5년이 3억 달러다. 발행 금리는 미국 3년 국채 수익률에 87bp, 5년 국채 수익률에 97bp를 더한 수준에서 정해졌다.

이번 현대캐피탈의 글로벌 채권 발행은 전 세계 140여개 이상 기관투자자들이 주무에 참여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다. /권소환 기자 think@